

中國語 形式動詞 研究*

- 형식동사의 범위를 중심으로 -

朴 起 賢**

<目 次>

- | | |
|-------------------|-----------------|
| I. 서 론 | 1. 중국어 형식동사의 특징 |
| II. 중국어 형식동사란 | 2. 중국어 형식동사의 범위 |
| III. 중국어 형식동사의 범위 | IV. 결 론 |

I. 서 론

어느 언어에서든 동사는 문장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으로 그 수가 많고 종류가 다양해서 문법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곤 한다. 중국어에는 그 어휘적인 의미가 비어있고 동작의 의미를 나타내는 빈어를 취하는 일련의 동사들이 있는데 이런 동사를 형식동사라고 부른다. 하지만 모두들 이런 종류의 동사가 존재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아직까지 형식동사의 정의나 이에 따른 범위의 설정에는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 이에 본문에서는 전형적인 형식동사구문을 통해 그 특징을 종합하고 이를 근거로 형식동사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이에 근거해 형식동사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 본 논문은 2005년 인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의 보조를 받은 것임.

** 인제대학교 중국학부 전임강사

II. 중국어 형식동사란

중국에서는 1950년대 말부터 ‘進行’이나 ‘加以’와 같은 종류의 동사에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동사들이 주목을 끈 이유는 바로 이들 동사 자체는 구체적인 동작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동작의 의미를 나타내는 빈어를 수반하며 述賓構造의 전체적인 의미정보는 주로 이 동작의 의미를 나타내는 빈어에 의해 전달되며 동사 스스로는 형식적으로만 서술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특징을 나타내는 동사에는 ‘進行’이나 ‘加以’ 외에도 ‘給以’, ‘予以’, ‘給予’, ‘作’ 등이 있다. 후에도 많은 학자들이 이런 동사들의 특징에 주목해왔으나 아직까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그 명칭에 있어서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呂叔湘(1980), 朱德熙(1985), 周剛(1987), 李臨定(1990) 등은 形式動詞라는 명칭을, 言久圣(1981)는 ‘傀儡動詞’라는 명칭을, 宋玉珂(1982)는 ‘无色動詞’라는 명칭을, 袁杰/夏允怡(1984)와 文煉/袁杰(1990)는 ‘虛義動詞’라는 명칭을, 朱德熙(1985)는 ‘虛化動詞’라는 명칭을, 范曉等(1987)은 ‘先導動詞’라는 명칭을, 陳宁萍(1987)은 ‘代動詞’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胡裕樹/范曉主編, 1996: 197-199) 하지만 모두들 이런 동사들의 어휘적인 의미가 불명확하고 술빈구조 전체의 의미는 주로 동작의 의미를 나타내는 빈어가 담당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朱德熙는 이런 동사들의 어휘적인 의미가 이미 확실히 약화되어 일부 문장에서는 잘라내도 문장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일부 허화동사끼리는 호환을 해도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으며¹⁾, 周剛도 이런 동사들은 동사를 빈어로 술빈

1) “這些動詞原來的詞匯意義已經明顯地弱化了, 因此在某些句子里把它們去掉并不影響原句的意思, 有些虛化動詞可以互換而不改變原句的意義。” 하지만 저자의 관찰에 의하면 문장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문장에서 잘라낼 수 있거나 虛化動詞끼리 호환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이는 虛化動詞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볼 수 없다.

구조를 구성할 수 있으며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처치나 처리를 나타내며 그 자체로는 구체적인 동작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형식적인 서술어로만 쓰이며 뒤에 나오는 동사빈어가 전체 술빈구조의 의미정보를 책임진다고 했으며²⁾, 袁杰과 夏允貽는 虛義動詞는 자체의 의미는 약해지거나 거의 사라지고 주로 혹은 기본적으로 문법적인 혹은 수사적인 역할만 하는 동사로 다른 동사와 술빈구조를 구성할 수 있거나 구성할 수밖에 없으며 전체 구조의 의미는 주로 동사빈어가 전달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³⁾. 이렇듯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상이하지만 사실상 거의 같은 내용을 가리키므로 어떤 명칭을 사용하는가의 문제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의미는 사라지고 그 형태 혹은 형식만 남아 있다는 의미에서 形式動詞라는 명칭으로 상술한 동사들을 지칭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좀 더 큰 이견은 형식동사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朱德熙의 경우 虛化動詞란 書面語에만 쓰이는 소수 타동사로 ‘進行’, ‘加以’, ‘給予’, ‘給以’, ‘予以’, ‘作’ 등이 있다고 했으며 周剛도 현대 중국어에는 ‘加以’, ‘給以’, ‘予以’, ‘給予’, ‘進行’, ‘作’ 등과 같은 종류의 동사들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袁杰/夏允貽가 말한 虛義動詞의 범위는 약간 넓은데 이들은 虛動(虛義動詞)이란 중국어 동사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며 자주 쓰이는 것으로는 ‘作’, ‘作出’, ‘進行’, ‘加以’, ‘給予’, ‘給以’, ‘從事’ 등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朱德熙나 周剛의 관점과 비교했을 때 ‘從事’가 늘어났으며 ‘作出’를 독립된 단어로 처리한 점이 차이가 난다. 言久圣가 말한 傀儡動詞에는 ‘進行’, ‘加以’, ‘給予’, ‘予以’, ‘從事’가 포함되며 李臨定과 陳宁萍의 범위는 약간 좁아서 李臨定가 말한 形式動詞에는 ‘進行’, ‘加以’, ‘作’가 포함되며 陳宁萍이 말한 代動詞에는 ‘作出’, ‘加以’, ‘進行’이 포함된다. 范曉等(1987)의 견해는

- 2) “這類動詞能够帶一个動詞組成述賓結構，表示對人或事物處置和對待，其本身却不表示具体的動作行爲意義，只充当形式上的述語，而讓后邊動詞賓語來負載這個述賓結構的語義信息。”
- 3) “虛義動詞是本身詞義削弱或几乎消失，主要起或基本上只起句法或修辭作用的動詞，他們能或只能跟另一个動詞組成動賓結構，該結構的語義主要由其中的動詞賓語來承擔。”

상술한 몇 사람의 견해와는 또 조금 다른데 그는 중국어의 ‘加以’, ‘予以’, ‘給以’, ‘給予’, ‘致以’, ‘受到’와 같은 동사들은 문법구조에서 다른 동사 앞에 놓여 어떤 대상에 동작을 가함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형식동사라는 동사의 하류분류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이들의 의미적인 특징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그 범위에 있어 일치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자는 이는 형식동사의 형태적인 기준이 없어서 형식동사에 대한 엄격한 정의를 내릴 수 없고 따라서 명확한 범위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형식동사는 어휘적인 의미가 불명확하고 술빈구조 전체의 의미는 주로 동작의 의미를 나타내는 빈어가 담당한다고만 묘사할 것이 아니라 논의를 좀 더 정밀하게 함으로써 형태적인 기준을 찾고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Ⅲ. 중국어 형식동사의 범위

3.1 중국어 형식동사의 특징

지금까지 형식동사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런 동사들의 의미적인 특징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왔으며 이런 문제의 해결은 관련 논의를 형태적인 특징과 연결시켜 논의를 좀 더 정밀하게 함으로써 가능하다. 그 한 가지 방법은 동사의 결합가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다. 결합가란 동사를 중심으로 문장이 구성된다는데 주목해 한 동사가 구조적으로 또 의미적으로 완전한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 몇 개의 필수성분⁴⁾을 요구하며 이런 성분들의 의미적인 성격은 어떠한가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면,

4) 이를 가리키는 여러 용어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가장 보편적인 ‘논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1) 她非常漂亮。
 (2) 我看過那本書。

결합가 문제를 논하는데 있어서 특정 명사성분이 필수성분인지 수의성분인지 즉 논항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중 하나는 삭제법이다. 즉 문장에서 삭제할 경우 문장이 성립하지 못하면 삭제된 성분은 필수성분으로 서술어의 논항이라고 할 수 있고 삭제해도 문장이 성립하는 경우 수의 성분이며 논항이 아니라고 판정할 수 있는 것이다. 예 (1)에서 ‘漂亮’은 하나의 필수성분을 요구하는 이항 서술어로 ‘她’와 함께 구조적으로, 의미적으로 완전한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며 (2)에서 ‘看’은 이항 서술어로 ‘我’, ‘那本書’와 함께 문장을 구성하고 있다. 만약 예문 (2)에서 ‘我’나 ‘那本書’, 혹은 ‘我’와 ‘那本書’가 모두 없다면 문장은 완전하지 못하며 문장 내 이 두 개의 논항 외 다른 성분이 있다면 그것은 필수성분이 아닌 수의성분이다. 서술어로 쓰이는 동사는 대부분 하나 혹은 두개의 필수성분을 요구하는 이항 혹은 이항 서술어이지만 때로 세 개의 필수성분을 요구하는 동사가 있기도 한다. 예를 들면,

- (3) 老師給他一個任務。

여기서 서술어로 쓰이고 있는 ‘給’는 ‘老師’, ‘他’, ‘任務’ 등 총 세 개의 필수성분을 요구하며 이중 하나만 없어도 문장의 구조나 의미는 완전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결합가를 중심으로 전형적인 형식동사구문을 살펴보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식동사라는 동사의 하위분류에 어떤 동사들이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연구에서 형식동사로 언급되고 있는, 학자들간에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 동사 중 하나는 ‘進行’이므로 우선 ‘進行’이 서술어로 쓰인 문장을 중심으로 형식동사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 예를 보면,

(4) 他已對韓國和日本進行了訪問。

이런 문장이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이유는 동사서술어 ‘進行’이 아주 추상적인 동작의 의미만을 나타낼 뿐 어휘적인 의미가 비어있고 그 빈어 ‘訪問’이 도리어 보다 구체적인 동작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술빈구조 ‘進行訪問’ 전체의 의미가 주로 이 목적어에 의해 표현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서술어로 쓰이고 있는 동사 ‘進行’의 논항은 분명 ‘他’와 ‘訪問’ 둘 뿐이므로 이 둘만 문장에 나타나면 문장은 완전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동사와 그 논항만으로는 문장이 완전하지 않다. 예를 들면

(4') 他已進行了訪問。

삭제법에 의한 검증 결과 ‘韓國和日本’는 동사서술어 ‘進行’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進行’의 논항이 아니지만 문장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성분이다. 그렇다면 개사구 ‘韓國和日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문장 (4)에서 빈어 ‘訪問’은 단순의 동작의 의미만을 나타낼 뿐 아니라 ‘進行’ 대신 직접 서술어로 쓰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4'') 他已訪問了韓國和日本。

여기서 두 개의 논항을 요구하는 이항서술어인 ‘訪問’은 ‘他’와 ‘韓國和日本’을 논항으로 완전한 문장을 구성하고 있으며 따라서 위의 예문 (4)에서도 ‘韓國和日本’은 ‘訪問’의 필수성분인 논항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사는 문장의 의미적, 구조적 중심으로 자신의 논항과 더불어 문장을 구성하나 여기서는 동사의 논항만으로는 완전한 문장을 이룰 수 없고 동작의 의미를 나타내는 빈어의 논항도 문장의 필수요소가 되는 것이다. 주덕희(1985)의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訪問’과 같은 단어는 동사와 명사의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빈어위치에서는 명사의 성격을 드러낸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형식동사구문에서는 동사서술어가 결합가 능력을 가질 뿐 아니라 명사빈어도 결합가 능력을 가지며 명사빈어의 결합가 능력이 문장에 반영되어야 완전한 문장을 이룬다.

상술한 바와 같이 형식동사 ‘進行’는 두 개의 논항을 요구하는 이항서술어이지만 예문(4)에서 他와 訪問을 논항으로 불완전한 문장을 구성한다. 그리고 그 빈어인 ‘訪問’도 두개의 논항을 요구하는 이항서술어이며 예문(4)와 같이 ‘他’와 ‘韓國和日本’을 논항으로 독립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식동사구문이란 형식동사 ‘進行’가 나타내는 사건구조와 그 빈어 ‘訪問’이 나타내는 사건구조가 겹쳐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 他進行訪問 + 他訪問韓國和日本 = 他對韓國和日本進行訪問

이것은 형식동사 자체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특징이 자신의 사건구조만으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동작을 나타내는 빈어의 사건구조를 필요로 한다는 통사적 특징과 연관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형식동사의 어휘적인 의미가 불명확하고 동작을 나타내는 빈어를 취하는 의미적인 특징을 형태적으로 드러내고 이를 통해 중국어 형식동사에 대해 좀 더 상세하고 명확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A) 동사서술어의 어휘적인 의미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동작의 의미는 그 빈어가 나타낸다는 의미적인 특징과 관련된 형태적인 특징으로, B) 이 빈어는 의미적으로 동작의 의미를 나타낼 뿐 아니라 보통 동사처럼 필수성분을 요구하므로 문장 전체의 구조는 동사서술어에 의해서 뿐 아니라 그 빈어에 의해서도 결정되며, C) 이런 의미 통사적인 특징이 초래하는 결과는 형식동사와 빈어로 이루어진 술빈구조를 빈어가 직접 서술어로 쓰이는 문장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3.2 중국어 형식동사의 범위

이전의 연구를 살펴보면 형식동사는 많게는 ‘進行’, ‘作’, ‘作出’, ‘加以’, ‘給予’, ‘給以’, ‘予以’, ‘致以’, ‘從事’, ‘受到’ 등이 포함할 수 있다⁵⁾. 이렇게 형식동사의 범위가 달라지는 주된 이유는 동사서술어의 의미가 얼마나 구체적이냐, 그 빈어는 동작을 나타내는가의 여부 등 의미적인 특징에만 주목했기 때문이다. 그중 ‘進行’, ‘作’, ‘加以’, ‘給予’, ‘給以’, ‘予以’는 모두 상술한 형식동사의 모든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전형적인, 이론의 여지가 없는 형식동사라고 할 수 있다.

3.2.1 進行, 作, 加以, 給予, 給以, 予以

동사는 문장의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성분으로 문장 내에서 특정 명사성분(논항)과의 공기를 요구한다. 따라서 동사가 요구하는 논항이 문장 내에 모두 나타났다면 문장은 완전해야 하며 반대로 동사의 논항이 문장 내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문장은 불완전해야 한다. 결합가의 각도에서 보면 형식동사구문의 가장 큰 특징은 형식동사의 빈어도 동사서술어처럼 결합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 두 개의 논항을 요구하며 따라서 문장 내에는 동사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 꼭 필요한 성분이 있다. 예를 들면,

- (6) 安南對美國的舉動也進行了抨擊。
- (7) 他們對違反部隊紀律的干部不姑息遷就，分別按軍紀作了嚴肅教育和處理。
- (8) 文藝領域對一切真正的有害於社會主義精神文明的作品也理應頒布法令加以清理。
- (9) 海關對所作出的商品歸類等行政裁定，應當予以公布。
- (10) 老師和同學對患病的學生應給予熱情幫助。

5) ‘作出’는 ‘作’가 보어를 취하고 있는 형태로 보아 ‘作’와 ‘作出’를 하나의 단어로 본다. 사실 ‘作’와 ‘作出’의 분포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분포상의 차이는 결과보어 ‘出’가 가져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11) 青海省對工程建設 寄予巨大希望, 給以巨大支持。

우선 A)의미적으로 예문에서 동사서술어인 ‘進行’, ‘作’, ‘加以’, ‘予以’, ‘給予’, ‘給以’ 등의 어휘적인 의미는 불명확하며 단지 아주 추상적인 동작의 의미를 나타내며 이들 동사서술어의 빈어인 ‘抨擊’, ‘教育和處理’, ‘清理’, ‘公布’, ‘幫助’, ‘支持’ 등은 모두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동작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 때문에 술빈구조 전체의 의미는 주로 빈어에 의해 표현된다. 예를 들면 (5)에서 ‘安南進行’은 단지 ‘安南’이 어떤 동작을 했음을 나타내며 구체적으로 어떤 동작인지에 대해서 ‘進行’가 제공하는 정보는 많지 않다. 반면 ‘進行’의 빈어인 ‘抨擊’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며 따라서 술빈구조 ‘進行抨擊’ 전체의 의미는 주로 ‘抨擊’에 의해 표현된다.

이런 B)의미적인 특징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법적인 특징은 빈어가 의미적으로만 동작의 의미를 나타낼 뿐 아니라 문법적으로도 동사서술어처럼 결합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 형식동사와 그 빈어가 모두 이항서술어로 두 개씩 논항을 요구한다. 상기 예문에서 밑줄 친 부분은 모두 동사서술어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빈어의 논항이라고 볼 수 있지만 문장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없으면 문장은 불완전해진다. 예를 들면

- (6') 安南也進行了抨擊。
- (7') 他們不姑息遷就, 分別按軍紀作了嚴肅教育和處理。
- (8') 文藝領域也理應頒布法令加以清理。
- (9') 海關應當予以公布。
- (10') 老師和同學應給予熱情幫助。
- (11') 青海省寄予巨大希望, 給以巨大支持。

여기서 형식동사의 빈어 ‘抨擊’, ‘教育和處理’, ‘清理’, ‘公布’, ‘幫助’, ‘支持’ 등은 모두 두 개의 논항을 요구하지만 형식동사가 요구하는 논항과 빈어의 논항이 겹쳐서 문장 내에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는 또 다른 필수성분이 문장 내에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불완전해지

고 있다. 이는 형식동사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에서 형식동사의 논항만으로는 완전한 문장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C) 대부분의 경우 ‘형식동사 빈어’의 술빈구조는 형식동사의 빈어가 직접 서술어로 쓰이는 문장으로 변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의미상의 변화는 거의 없다. 예를 들면

- (6") 安南抨擊了美國的舉動。
- (7") 他們按軍紀嚴肅教育并處理了違反部隊紀律的干部。
- (8") 文藝領域理應頒布法令清理一切真正的有害于社會主義精神文明的作品。
- (9") 海關應當公布所作出的商品歸類等行政裁定。
- (10") 老師和同學應熱情幫助患病的學生。
- (11") 青海省極力支持工程建設。

이를 통해 우리는 우선 ‘進行’, ‘作’, ‘加以’, ‘予以’, ‘給予’, ‘給以’ 등을 중국어의 형식동사로 볼 수 있으며 상술한 동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명사빈어의 결합가 능력이 문장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명사의 결합가에 있어서 ‘進行’, ‘作’, ‘加以’의 상황은 ‘予以’, ‘給予’, ‘給以’와 완전히 같지는 않다. ‘進行’, ‘作’, ‘加以’는 원래 모두 이항서술어로 두 개의 논항을 요구하나 문장 내에는 세 개의 필수성분이 나타나므로 동사의 지배를 받는 두 개의 성분 외에 나머지 하나는 빈어의 지배를 받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予以’, ‘給予’, ‘給以’는 모두 ‘給’의 의미를 나타내며 ‘給’은 세 개의 논항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삼항 서술어이므로 문장 내의 세 개의 필수성분을 모두 동사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보고 빈어의 결합가 능력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듯 하다. 예를 들면,

- (12) 哥給我一個蘋果。
- (13) 老師給他一個任務。

여기서 두 문장의 각 세 개의 명사성분은 모두 동사서술어인 ‘給’의 논

항이다. 그렇다면 ‘予以’, ‘給予’, ‘給以’ 등 동사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에서 빈어의 결합가는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전형적인 수여동사인 ‘給’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과 ‘予以’, ‘給予’, ‘給以’ 등 형식동사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은 그 구조가 같지 않다. 우선 의미적으로 전형적인 ‘給’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에서 세 개의 필수성분은 모두 명사로 施事, 受事, 与事 세 개의 논항으로 이루어진 단일한 사건을 나타낸다. ‘予以’, ‘給予’, ‘給以’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에서는 세 개의 필수성분 중 하나는 동작을 나타내며 세 개의 필수성분간에 직접적인 의미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즉 세 개의 필수성분이 하나의 단일한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사의 사건구조와 빈어의 사건구조가 겹쳐져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 (14) 海關對所作出的商品歸類等行政裁定, 應予以公布。(=(9))
 → 海關予以公布 + 海關公布所作出的商品歸類等行政裁定
- (15) 老師和同學對患病的學生應給予熱情幫助。(=(10))
 → 老師和同學給予熱情幫助 + 老師和同學幫助患病的學生
- (16) 青海省對工程建設寄予巨大希望, 給以巨大支持。(=(11))
 → 青海省給以巨大支持 + 青海省支持工程建設

그 외 ‘給’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은 형식동사가 서술어로 쓰인 (8”), (9”), (10”)와 같은 문장처럼 술빈구조를 빈어가 직접 서술어로 쓰이는 식으로 문장을 변환할 수 없다. 이처럼 ‘予以’, ‘給予’, ‘給以’가 서술어로 쓰인 형식동사구문은 전형적인 수여동사 ‘給’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과 구별이 가능하며 형식동사구문에서는 명사의 결합가 능력이 문장에 반영된다.

3.2.2 從事, 受到 得以

여기서는 袁杰/夏允貽, 言久聖가 말한 ‘從事’와 范曉等이 언급한 ‘受到’와 ‘受到’와 성격이 비슷한 ‘得以’의 상황을 살펴보자. 우선 ‘從事’가 서술어로 쓰인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 (17) 他從事東方學研究，曾兩次到過西藏。
 (18) 動員社會力量從事旅游紀念品開發。

A)형식동사의 의미특징을 기준으로 보면 위의 예문에서 ‘從事’의 의미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분명한지는 판단이 쉽지 않지만 빈어 ‘研究’와 ‘開發’은 동작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아마도 이를 근거로 ‘從事’를 형식동사에 포함시킨 듯 하다. 하지만 B)형식동사의 문법적인 특징을 기준으로 보면 결과는 약간 다르다. 예 (17)에서 의미적으로 빈어 ‘研究’의 논항 중 하나는 ‘東方學’라고 할 수 있고 이 논항은 빈어의 수식어로 쓰이고 있으므로 문법적으로 ‘東方學’는 ‘研究’에 종속되어 있으며 ‘研究’를 떠나 독립적인 문장성분이 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문장 내에는 빈어의 결합가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從事’는 준위빈동사⁶⁾의 일종으로만 볼 수 있을 듯 하다. 예 (18)에서 ‘研究’의 논항인 ‘東方學’를 ‘研究’의 수식어 위치에서 떼어내 개사구로 만들면 문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 (17') *他對東方學從事研究，曾兩次到過西藏。

그 외 C)에 (17)은 술빈구조를 빈어가 직접 서술어로 쓰이는 형태로 변환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 (17'') 他研究東方學。

하지만 변환 전후 문장의 의미는 큰 변화가 생긴다. 예 (18)의 경우 더 명확한데 A)의미적으로 ‘旅游紀念品’은 빈어 ‘開發’의 논항이라고 할 수 있지만 B)마찬가지로 이는 단지 ‘開發’의 수식어로 ‘開發’에 종속될 뿐 독

6) 주덕희(1982)는 빈어의 성격에 따라 동사를 체언만을 빈어로 취하는 체빈동사와 용언도 빈어로 취할 수 있는 위빈동사로 나누고 다시 이음절동사와 명사성수식구조만을 빈어로 취하는 동사를 준위빈동사로 분류한 바 있다.

립적인 문장성분이 될 수 없다. 빈어의 의미상의 대상이 수식어 위치에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장 내에는 빈어의 결합가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역시 ‘**旅游紀念品**’를 개사구로 ‘**開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 예를 들면,

(18') ***動員社會力量對旅游紀念品從事開發**。

C)에 (18)도 역시 술빈구조를 빈어가 직접 서술어로 쓰이는 문장으로 변환시킬 수 있기는 하다. 예를 들면,

(18'') **開發旅游紀念品**。

하지만 이 경우 원래의 문장인 ‘**從事旅游紀念品開發**’와는 의미가 달라진다. 다른 ‘**從事**’가 동작의 의미를 나타내는 빈어를 취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從事米粉加工**’, ‘**從事革命斗爭**’, ‘**從事現代化建設**’ 등. 이를 통해 볼 때 ‘**從事**’는 형식동사의 가장 큰 특징인 빈어명사의 결합가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므로 형식동사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

어떤 각도에서 보면 ‘**受到**’나 ‘**得以**’⁷⁾ 등도 형식동사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從事**’의 경우와 같이 준위빈동사의 일종으로만 볼 수 있을 따름이다. 우선 A) ‘**受到**’의 의미가 얼마나 실제적인지는 역시 명확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 이음절 동사를 빈어로 취하곤 한다. 예를 들면,

(19) 這一獨到的富有創造性的應急搶救方案受到了衛星研製部門和專家的高度贊揚。

7) ‘**得以**’를 형식동사라고 직접 언급한 사람은 없지만 하지만 蔡文蘭(1986)은 비명사성 빈어를 요구하는 동사 중 처치의 의미를 나타내고 ‘**以**’로 구성된 ‘**加以**’, ‘**致以**’, ‘**給予**’, ‘**予以**’ 등과 같은 부류의 동사가 있다고 했으며 주로 이음절로 된 동작의 의미를 나타내는 빈어를 나타내므로 함께 언급한다.

B)문장에서 두 개의 논항은 모두 동사서술어인 ‘受到’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비록 빈어가 동작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동작의 의미를 나타내는 빈어는 문장전체의 구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또 수식어인 ‘衛星研製部門和專家’를 독립적인 문장성분의 자리에 놓을 수도 없다. C)변환관계에 있어서 ‘從事’의 경우처럼 빈어가 직접 서술어로 쓰이는 문장으로 변환이 가능하긴 하나 이 경우 문장의 의미에 큰 변화가 생긴다. 예를 들면,

(19') 衛星研製部門和專家的高度贊揚了這一獨到的富有創造性的應急搶救方案。

‘得以’의 상황은 ‘受到’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A)‘得以’도 동작의 의미를 나타내는 빈어를 수반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의 ‘得以’도 어휘적인 의미가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20) 這棟樓沒有裝烟感噴淋裝置，發生大火后无法及時自動感應發現，大火得以迅速蔓延。

(21) 農村生活條件得以改善，人民生活水平得以提高。

동사의 어휘적인 의미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得以’가 없더라도 문장이 성립하며 의미의 변화 또한 없기도 한다. 예를 들면

(20') 這棟樓沒有裝烟感噴淋裝置，發生大火后无法及時自動感應發現，大火迅速蔓延。

(21') 農村生活條件改善了，人民生活水平提高了。

B)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이든 문장 내 두 개의 필수성분은 동사의 지배를 받으며 동사의 지배를 받는 두 개의 성분 외에 다른 필수성분은 필요치 않으며 빈어명사의 결합가능력은 역시 불필요하다. 이를 통

해 우리는 ‘從事’, ‘受到’, ‘得以’ 등은 형식동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3.2.3 致以와 기타

范曉等(1987) 등이 형식동사로 언급한 ‘致以’의 상황을 보면 ‘致以’는 전체적으로 분포가 넓지 못하고 몇 개의 동작의 의미를 나타내는 빈어만을 취하곤 한다. 예를 들면

(22) 我們對您致以熱烈的祝賀。

(23) 企業界向他的父母致以深切慰問，并捐款8.5萬元人民幣。

A) 우선 형식동사의 의미적인 특징을 기준으로 보면 위의 예문에서 ‘致以’의 어휘적인 의미가 얼마나 구체적이지는 역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致以’의 빈어 ‘祝賀’와 ‘慰問’은 모두 동작의 의미를 나타내며 때문에 술빈구조 전체의 의미적인 정보는 이 빈어에 의해 표현된다고 할 수도 있다. B) 문법적으로 ‘對您’, ‘向他的父母’는 필수성분이나 동사서술어 ‘致以’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빈어 ‘祝賀’, ‘慰問’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對您’, ‘向他的父母’는 빈어 ‘祝賀’, ‘慰問’의 논항이라고 할 수 있다. C) 어떤 문장에서는 의미의 변화가 없이 술빈구조를 빈어가 직접 서술어로 쓰이는 문장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22') 我們熱烈地祝賀您。

(23') 企業界慰問了他的父母。

이렇게 보면 ‘致以’는 형식동사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더구나 ‘致以’가 ‘予以’, ‘給予’, ‘給以’같은 형식동사처럼 ‘給’의 의미를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致以’는 다른 형식동사와 다른 점도 있는데 우선 다른 형식동사가 수반하는 빈어의 범위는 아주 넓고 개방적인데 반해 ‘致以’의 빈어

는 아주 제한적이어서 예문의 ‘祝賀’, ‘慰問’ 외에 ‘問候’, ‘哀悼’, ‘敬禮’ 등이 있을 뿐이며 또 ‘致以’가 ‘表達’나 ‘表示’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실제 ‘現代漢語詞典’에서 ‘致’의 첫 번째 의미는 “給与 ; 向對方表示”이다. 예를 들면

(24) 我們向人們解放軍、武警部隊指戰員致以崇高的敬義。

그렇다면 ‘表示’는 다른 ‘說’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처럼 본래 세 개의 논항을 요구하는 삼항 서술어이므로 예 (22), (23)에서 ‘致以’는 본래 ‘誰對誰表示什麼’의 구조를 이룬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給’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동사와는 달리 전형적인 삼항 서술어구문과 형식동사구문이 명확하게 구분되지도 않는다. 전체적으로 다른 형식동사와는 달리 분포가 아주 좁고 본래 세 개의 논항을 요구하는 ‘說’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로 볼 수도 있으므로 ‘致以’가 형식동사인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 외 ‘打’, ‘展開’, ‘搞’ 등의 일부 용법에 대해서도 판단이 쉽지 않다. 예를 들면,

(25) 中央語文教學問題委員會給党中央打報告，正式提交了文學和語言分科教學的建議。

(26) 他們就中國的入世問題展開討論。

(27) 大家帶着鋪蓋卷下鄉，吃住在村里，一邊摸嚴打線索，一邊搞法制宣傳。

예 (25)에서 ‘打’의 어휘적인 의미는 불명확하며 없어도 의미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예 (26)에서 ‘中國的入世問題’는 동사서술어 ‘展開’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빈어 ‘討論’의 논항으로 볼 수도 있을 듯 하다. (25)와 (26)의 술빈구조는 빈어가 직접 서술어로 쓰이는 문장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 예 (27)에서 ‘搞法制宣傳’는 ‘宣傳法制’라고만 말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의미상의 변화는 없다. (27)은 구조가 복잡한 문장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大家搞法制宣傳’로 간략화시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打’, ‘展開’, ‘搞’도 용례가 많지 않아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위에서 토론한 동사들은 모두 이음절이었던데 반해 단음절이면서 형식동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袁杰/夏允貽(1984)은 형식동사가 일부 정도,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와 같이 쓰일 때 ‘단음절부사+ 단음절 형식동사’의 축약형태를 쓰곤 한다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嚴加/大加/不加(加以)’, ‘即行/另行(進行)’, ‘不予 予以’ 등. 하지만 본문의 관찰에 따르면 이들 단음절부사+단음절동사의 상황이 모두 같지는 않다. 우선 예를 보면,

- (28) 我們可以把它看作熟語而 不加分析。
- (29) 不少問題只是提了出來，并未詳加闡述。
- (30) 有關方面對小說內容嚴加保密。
- (31) 國家規定放寬信用卡透支額度，銀行對這項政策基本 不予執行。

위의 예문에서 단음절 동사의 용법은 상응하는 이음절 형식동사인 ‘加以’, ‘予以’와 거의 같다. 중국어에는 이음절화 경향이 뚜렷하므로 ‘加以’나 ‘予以’같은 이음절 동사 앞에 단음절 부사가 붙게 되면 전체 구조는 삼음절이 되고 여기에 대부분 이음절인 동작의 의미를 나타내는 빈어가 붙게 되면 음절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형식동사의 축약형태가 출현했다고 할 수 있다.

袁杰/夏允貽는 ‘단음절부사+行’의 구조에서 ‘行’을 형식동사 ‘進行’의 축약형태로 보았는데 사실 ‘進行’과 ‘行’의 분포는 다르다. 예를 들면,

- (32) 自治區建工醫院的院長因涉及其他案件已經被刑事拘留，對他的行政處分將由其主管部門另行作出。
- (33) 代理期滿，考察合格者正式任用，不合格者取消代理資格，另行安排工作。

예 (32)에서 ‘行’의 빈어인 ‘作出’는 다른 형식동사의 빈어로 쓰일 수 없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도 ‘進行作出’라고 말할 수 없다. 더구나 예 (33)에서 ‘行’의 빈어는 자체가 하나의 술빈구조인 ‘安排工作’인데 이런 구조는 ‘進行’의 빈어로 쓰일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형식동사의 빈어로도 쓰일 수 없다. 이렇듯 ‘行’은 다른 형식동사가 받고 있는 빈어 성질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형식동사와는 또 다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IV. 결 론

중국어에서 형식동사는 그 수는 많지 않지만 어휘적인 의미가 비어있고 항상 동작의 의미를 나타내는 빈어를 취한다는 특징 때문에 일찍부터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왔다. 하지만 이전의 연구에서는 형식동사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린 적이 없었고 따라서 그 범위에 있어서도 이견이 존재해 왔다. 이에 본문에서는 우선 이전의 의미적인 특징에만 주목했던 태서 벗어나 형태적인 방법으로 형식동사의 특징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중국어 형식동사의 범위에 대해 토론해 보았다. 중국어 형식동사는 A)동사서술어의 어휘적인 의미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동작의 의미는 그 빈어가 나타내며; B)이 빈어는 의미적으로 동작의 의미를 나타낼 뿐 아니라 보통 동사처럼 필수성분을 요구하므로 문장 전체의 구조는 동사서술어에 의해서 뿐 아니라 그 빈어에 의해서도 결정되며; C)이런 의미, 통사적인 특징이 초래하는 결과는 형식동사와 빈어로 이루어진 술빈구조를 빈어가 직접 서술어로 쓰이는 문장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특징을 근거로 기존의 연구에서 형식동사로 언급되었던 동사들을 살펴보면 ‘進行’, ‘作’, ‘加以’, ‘予以’, ‘給予’, ‘給以’은 형식동사로 볼 수 있는 반면 ‘從事’, ‘受到’, ‘得以’ 등은 형식동사로 볼 수 없을 듯 하다. 단음절 형식동사 중에서 ‘行’은 그 성격이 ‘進行’과는 다르므로 형식동사와는

달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致以’와 다른 사람들의 연구에서는 잘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형식동사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展開’, ‘打’, ‘展開’, ‘搞’ 등의 경우 후속연구를 통해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參考文獻>

- 蔡文蘭, <帶非名詞性賓語的動詞>, 《中國語文》4, 1986.
- 陳宇萍, <現代漢語名詞類的擴大—現代漢語動詞和名詞分界線的考察>, 《中國語文》5, 1987.
- 龔千炎, <論“加以”>, 《中國語文》2, 1961.
- 龔千炎、胡治農, <略說動詞“搞”>, 《中國語文》1, 1979.
- 華景年, <“加以”“予以”等是沒有生命的字眼么?>, 《中國語文》11, 1959.
- 胡裕樹、范曉主編, 《動詞研究》, (河南大學出版社), 1995.
- 胡裕樹、范曉主編, 《動詞研究綜述》, (山西高校聯合出版社), 1996.
- 宋玉珂, <“進行”的語法作用>, 《語言教學與研究》1, 1982.
- 王年一, <說“進行”>, 《中國語文》12, 1959.
- 王陽珍, <說“加以”的語法特点>, 《中國語文》11, 1959.
- 吳爲章, <与非名詞性賓語有關的几个問題>, 《中國語文》1, 1981.
- 袁毓林, <現代漢語二价名詞研究>, 《中國社會科學》2, 1992.
- 周剛, <“加以”補議>, 《漢語學習》3, 1985.
- 周剛, <形式動詞的次分類>, 《漢語學習》1, 1987.
- 周小兵, <“進行”“加以”句型比較>, 《漢語學習》6, 1987.
- 朱德熙, 《語法講義》, (商務印書館), 1982.
- 朱德熙, <現代書面漢語的虛化動詞和名動詞>,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5, 1985.
- 김유정, <국어 복합술어구문 연구-기능동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김제열, <‘하다’동사의 문장보어 연구-완형보문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1997.
이선희, <한국어 복합술어 구문에 대하여>, 《말》18, 1993.

<中文提要>

汉语语法学界早就有人注意到汉语形式动词的特殊性质,从五十年代开始就有人讨论汉语形式动词问题。通过一些学者的研究汉语形式动词的各种面貌都比较清楚了,但并不是学者之间毫无分歧。人们对汉语形式动词的分歧主要反映在汉语形式动词的名称和范围问题上。在名称问题上很多学者都有不同的叫法。但大家都承认这类动词有一个特点,即动词本身的词汇意义已经明显虚化,要带一个动词宾语,主要语义信息由动词宾语来表达。种种名称大都来自对形式动词结构上述语义特点的认识。但关于形式动词的范围问题,大家又有一些分歧。综观大家的看法,形式动词的成员最多可以包括,“进行、作、作出、加以、给予、给以,予以、致以、从事、受到、有”等,但最少只包括“进行、加以、作”等。之所以大家对形式动词的范围没有一致的看法,主要是因为形式动词没有明确的形式标准,没法对形式动词下一个严格的定义、确定一个明确的范围。

我们分析典型的形式动词“进行”的结构发现,“进行”的宾语跟一般的动词一样有配价能力,要求自己的配项与之共现,所以句子里面有一个不是动词的配项,但不可或缺的成分。结果句子结构的不光由动词来决定,宾语也影响句子的结构,整个句子的配价结构就呈现层次性。宾语之所以可以把自己的配价能力完全发挥出来,是因为“进行”类准谓宾动词的词汇意义比较虚,只表示很抽象的动作用,到底具体什么样的动作,“进行”等动词没有提供足够的信息,所以名动词就要补充动词的较虚的动作用,把自己的配价能力也体现出来。

我们在对形式动词“进行”分析的基础上确定了形式动词的语义、语法标准,这些标准是;一,句中主要动词的词汇意义不明显,这种宾语从意义上表

示的是动作义, 整个述宾结构的意义主要由宾语来表达; 二, 这种宾语不仅在意义上表示动作, 语法上也跟一般的动词一样有配价要求, 这样整个句子的结构由动词和宾语一起决定; 三, 有时述宾结构可以换成单个动词, 而这个单个动词就是变换前述宾结构的宾语, 变换前后意义都没有多少变化。根据这些标准, 汉语形式动词包括“进行”、“作”、“加以”、“给予”、“给以”、“予以”, “从事”和“受到”则不能看做形势动词。此外“致以”等动词的情况不容易下明确结论, 需要进一步的研究。

주제어 : 형식동사, 결합가, 필수성분, 논항

K C I